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

## ◆차례◆

###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 (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1쪽 (8문제)
- (2) 글로 쓰는 나의 꿈-----6쪽 (19문제)
- (3) 시각 상과 촉각 상\_이주헌-----13쪽 (47문제)

###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 (1) 향수\_정지용-----33쪽 (54문제)
- (2) 장마\_윤홍길-----53쪽 (57문제)
- (3)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_바바라 오코너 원작 /  
김성호·신연식 각본-----81쪽 (44문제)
- (4) 한 그루 나무처럼\_윤대녕-----110쪽 (35문제)

### 3. 영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_고영삼-----129쪽 (38문제)
- (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147쪽 (32문제)

###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 (1) 음운의 변동-----164쪽 (61문제)
- (2) 우리말 바로 쓰기\_이선웅·정희창-----180쪽 (65문제)
- (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197쪽 (12문제)

###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 (1)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205쪽 (10문제)
- (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210쪽 (7문제)

▶전체 정답 -----214쪽

▶해설 -----217쪽

(버전: 2020.03)

### 3-(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 3.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위험한 이유	구체적 근거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공부나 일을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작업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짐.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음.</li> <li>• 스마트폰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낌.</li> <li>•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함.</li> </ul>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이 피로해지고 목,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옴.</li> <li>•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됨.</li> <li>•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li> </ul>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움.</li> <li>•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li> </ul>

#### 4.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방안	구체적 내용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쉼 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및 전화 상담하기</li> <li>• 상담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기</li> </ul>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및 응용 프로그램 사용 내역 기록하기</li> <li>•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몇 개로 한정하여 사용하기</li> </ul>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정해 준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식사, 가족 대화, 취침 전후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li> <li>•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li> </ul>
스마트폰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나 학습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마트폰 사용하기</li> <li>•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li> </ul>

① 영삼이가 <보기>의 개요를 참조하여 논설문을 쓰려고 한다. 다음 물음들에 답하시오.

<보기>

주제 :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그 해결 방안

서론 : 일상화된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  
본론

1.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
2.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 a. 집중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가 올 수 있다.
  - b. 각종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 c.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d.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 a.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다.
  - b.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본다.
  - c.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정해 준수한다.
  - d. 스마트폰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

결론 :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당부-----㉤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1. 아래의 자료가 영삼이의 글쓰기에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은 <보기>의 ㉠~㉤ 중 어느 곳인가?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2.1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11.4퍼센트이었던 것에 비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4.0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27.6퍼센트였다. 청소년 열 명 중 세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셈인데,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2. 다음은 영삼이가 <보기>의 ㉢에 활용하려고 수집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그 분류가 다른 하나는?

- 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장애 및 만성피로가 생겨난다.
- ②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 ③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감정의 조절이 어려워진다.
- ④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 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중 매체 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한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에만 해도 많은 전문가는 휴대 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그러한 호언장담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중략>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 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를 분산되고 능률도 떨어진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다. 또한 자극이 없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식이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음 가능 물질'로 분류하였다.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 건강에 끼치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헐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 세계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누리소통망(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는 이를 자기의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현재의 상태가 심각하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스마트 쉽 센터’ 누리집(www.iapc.or.kr)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 본 후,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만약 집 근처에 ‘건강 가정 상담 센터’나 ‘청소년 상담 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이 있다면 이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전문 상담사가 지긋지긋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 준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보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 등을 스스로 기록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도 좋다. 책상 서랍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 서랍 활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도 몇 개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넷째,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할 때에는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그러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준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수택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④ 문제의 원인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비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수택고등학교 (경기)**

**4.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되어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② 도파민의 분비 감소로 쾌락 자극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며, 세로토닌의 분비 증가에 따라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 ③ 발암 가능 물질인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을 상승시킴으로써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④ 작업 기억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주의 분산과 능률 저하로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기도 한다.
- ⑤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수택고등학교 (경기)**

**5.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 중에 빈번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 사용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 ② 스마트폰 활용에는 장점도 있을 텐데 단점만 언급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는 것은 편협적인 판단이 아닐까?
- ③ 자가 진단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중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보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권유가 아닐까?
- ④ 사람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목적이 다른데 필수적인 응용프로그램 몇 개를 지정해주고 그것만 사용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해결책이 아닐까?
- 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 실제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2.1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11.4퍼센트이었던 것에 비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4.0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27.6퍼센트였다. 청소년 열 명 중 세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셈인데,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 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를 분산되고 능률도 떨어진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다. 또한 자극이 없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식이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였다.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 건강에 끼치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헐뜯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 세계에서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누리소통망(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는 이를 자기의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 고영삼,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생활 속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를 비교하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④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스마트폰 사용의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스마트폰의 사용량의 측면에서 중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② 인간의 두뇌의 기억 용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일을 동시에 하더라도 공간은 부족해지지 않는다.
- ③ 도파민과 같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 ④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되어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 ⑤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지각능력에도 영향을 끼쳐 현실에서 일탈 행동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영특여자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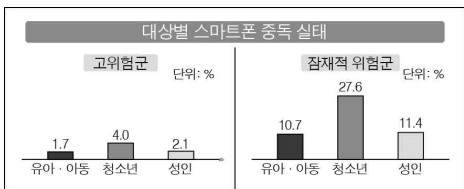
**8. 밑글에서 제시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보충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용이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을 멈추지 않아 시험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
- ② 스마트폰에 중독된 재현이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사용해도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우울증이 더 심각해졌다.
- ③ 명찬이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횡단보도가 빨간 불로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 ④ 밤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던 찬솔이는 최근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대학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
- ⑤ 충현이는 SNS 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불장난을 일으키다 발각되어 경찰에 구속되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중 매체 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한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에만 해도 많은 전문가는 휴대 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그러한 호언장담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 실제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 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고 능력도 떨어진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라)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중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실 스마트폰이 나쁘지만 한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서 ( a ).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현재의 상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스마트 심 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 본 후,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만약 집 근처에 '건강 가정 상담 센터'나 '청소년 상담 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이 있다면 이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바)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할 때에는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그러나 손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요즘 청소년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울산농천고등학교 (울산)**

**9. 밑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스마트폰의 장점
- ② 스마트폰의 문제점
- ③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 ④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 ⑤ 스마트폰 누리소통망(S.N.S.)이 가지는 한계

3-(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핵심 정리

갈래	협상 담화	성격	설득적, 논리적
제재	음악실 사용		
주제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의 절차에 따라 협상이 전개됨.</li> <li>• 협상을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냄.</li> </ul>		

◆구성

시작 단계	음악실 사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함.
조정 단계	음악실 사용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검토함.
해결 단계	음악실 사용 시간 및 방법을 합의함.

1. ‘시작 단계’에서의 협상 내용

갈등의 원인 분석	→	교내 합창 대회에 참가하는 재민네 반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밴드 동아리 모두가 집중 연습을 위해 음악실 사용을 원함.	
문제 해결의 가능성 확인	→	정연	재민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는 반대하지 않음.	밴드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 려할 생각이 있음.

2.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 내용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이해	→	재민	정연
		밴드 동아리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외부 대회에 출전하며, 음악실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함.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재민네 반에게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함.
대안 제시 및 상호 검토	→	재민의 대안	정연의 검토와 대안
		재민네 반이 주중에 하루와 주말 이 틀, 즉 일주일에 삼 일만 음악실을 사용하고, 밴드 동아리가 나머지 사 일을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에는 강사의 연주 지도가 예정되 어 있어서 재민의 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움.</li> <li>• 주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안을 제 시함.</li> </ul>
		재민의 검토와 대안	정연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 네 시 이후에는 반 친구들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정연의 대안을 받아들이기 힘들.</li> <li>•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 용하는 대신 재민네 반이 주중에 사 일 동안 원하는 시간에 사용하는 대 안을 제시함.</li> </ul>	재민네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 음악실을 사 용하는 대안을 수용함. (‘해결 단계’에서 정연은 재민의 대안 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



3. '해결 단계'에서의 협상 내용

타협과 조정을 통한  
합의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시부터 여섯시까지 재민네 반이,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하루 종일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함.
- 밴드 동아리가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재민네 반에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고, 재민네 반은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맡아 관리함.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작 단계]

데릴사위 : 제가 3년 7개월을 무료 봉사로 일해 드렸습니다. 제 성례 날짜를 딱 정하지요.

장인어른 :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성례 날짜는 당연히 정해야지. 네가 데릴사위이지 머슴은 아니지 않니?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일이 너무 바쁜 시기야. 그래서 일할 일꾼을 새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장 네 성례까지 시켜 주면 일꾼이 하나도 없어서 좀 힘들 것 같다.

데릴사위 : (흥분한 목소리로) 저도 지금 당장 성례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례를 언제 할지 날짜는 정했으면 합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기에는 저의 인내심이 이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조정 단계]

장인어른 : (진정하라는 듯이 손을 펼쳐 내리며) 그래그래, 내 잘 알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지? 너의 성례를 최대한 빨리 시켜 주마. 대신 네가 일꾼을 구할 때까지 성례 후에도 조금만 일을 더 해 주는 건 어떠냐?

데릴사위 : 성례를 시켜 주신다면 제가 일을 조금 더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님, 다음 일꾼을 구하시는 겁니까? 또 기약 없이 저를 계속 부리시려는 건 아닌가요? 그것 역시 기한을 정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장인어른 : 어수룩한 줄 알았더니 요 녀석 허투루 넘어가질 않는구나. 좋다. 그럼 2년의 기한을 정하는 게 어떻겠니?

데릴사위 : 2년은 너무 깁니다. 전 최대한 1년을 생각했는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지? 성례를 최대한 빨리, 당장 다음 달에 시켜주시죠. 그렇다면 대신 제가 1년 반 정도 일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단계]

장인어른 : 1년 반이라..... 너 그 말 꼭 지키는 거지? 그렇다면 성례를 다음 달에 시켜 주마. 네 말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

데릴사위 :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도 좋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드디어 성례를 하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장인님.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애 : 데릴사위와 장인어른의 갈등의 원인은 데릴사위의 성례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예인 : 장인어른은 시작 단계에서 성례 날짜는 당연히 정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 해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 ③ 미주 : 데릴사위는 조정 단계에서 당장 성례를 시켜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아닐까?

- ④ 수정 : 데릴사위는 조정 단계에서 장인어른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한 후 새로운 대안을 장인어른에게 제시하고 있군.
- ⑤ 지수 : 데릴사위와 장인어른은 해결 단계에서 결국 타협하여 합의에 이르고 있군.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2. '데릴사위'와 '장인어른'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릴사위는 자신의 요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장인어른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 ③ 데릴사위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④ 장인어른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⑤ 데릴사위의 흥분한 목소리는 협상에서 충분히 적절한 태도이다.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작 단계

재민 :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3반 반장 강재민이라고 해.

정연 : 안녕? 나는 밴드 동아리 회장 박정연이라고 해. 나도 반가워.

재민 : 요즘 우리가 음악실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잖아. 음악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 보자.

정연 : 그래, 그게 좋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아리는 지금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 준비로 한창 연습 중이야. 게다가 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방과 후에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따라서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

재민 :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당장 보름 뒤에 열릴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 우리도 너희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지만, 주중과 주말 시간 모두를 양보할 수는 없어.

조정 단계

정연 : (흥분한 목소리로) 교내에서 열리는 합창 대회와 학교를 대표하여 나가는 외부 대회가 같니? 우리 동아리의 대회 출전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이야. 평소에도 우리 동아리가 매일 음악실을 청소하고 관리했는데, 청소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

재민 :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음악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서 음악실 사용 시간을 정해 보자. 지금 우리 받은 갑자기 합창 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거라 다른 참가 팀에 비해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해. 최소한 일주일에 사 일 이상은 모여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야. 게다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거라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꼭 필요해.

정연 :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너희도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악기 연습까지 하려면 더욱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우리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 데다,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드럼과 같은 크고 무거운 악기와 전자 장비를 모두 옮겨야 해서 힘들게 사실이야.

재민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을 듣고 보니, 너희 동아리는 음악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반이 주중에 하루, 주말 이를 이렇게 음악실을 일주일에 삼 일만 사용할게. 대신 너희 동아리는 사 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거지?

정연 : 우리 동아리 상황을 고려해 줘서 고맙긴 한데, 주말에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밴드 지도 강사님이 오셔서 연주 지도를 해 주시기로 했어. 아무래도 주말에는 우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주말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래?

재민 : 그때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주말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신 주중에 사 일을, 우리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도 조금만 양보해 줘.

정연 :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가 언제인데?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연습을 하거든. 우리 동아리는 각기 다른 반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특정 시간이 아니면 전체 인원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

재민 :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럼 네 말은 주중에 매일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니?

정연 : 아, 미안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 주면 우리가 연습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이었어.

재민 : 그렇다면 우리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음악실을 사용할게. 시간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가 좋겠

어. 합창 대회에 나가려면 적어도 매번 한 시간씩은 교박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너희 동아리 연습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삼십 명이 넘는 반 친구들의 일정을 맞추려면 그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

해결 단계

정연 :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지. 네 요구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하도록 해.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음악실을 쓸게.

재민 : 음..... 그렇게 하자.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교실에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줄 수 있겠니? 주말에 아예 합창 연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연 : 그래, 마침 사용하지 않는 전자 피아노가 있어. 일반 피아노가 아니라 불편하겠지만, 전자 피아노로도 연습할 수 있다면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우리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줄어든 만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음악실 청소를 맡아서 해 주었으면 해. 이제 너희도 음악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 동아리에서 음악실 청소까지 하면 연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 같아.

재민 : (미소를 지으며) 응,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어. 그럼, 우리 합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우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너희 동아리가 사용하기로 했어. 그리고 주말에는 너희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는 거야.

정연 : 그래, 맞아. 그리고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너희 반에서 음악실 청소를 맡아 관리하기로 했어. 혹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하자.

재민 : 그럼, 이제 합의한 거다. 우리 서로 잘해 보자.

**수택고등학교 (경기)**

**3. '정연'과 '재민'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연은 재민이의 말에 다소 감정적인 태도로 대응하기도 하는군.
- ② 재민과 정연 모두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며 듣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재민과 정연 모두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군.
- ④ 재민은 적절한 어조와 억양 등의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정연은 재민의 반응을 확인하며 자신이 한 말의 의도와 핵심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군.

**수택고등학교 (경기)**

4. 다음은 정연이가 준비한 협상 계획서이다. 계획서의 내용대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과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협상 준비 계획서

- 협상 대상
  - 3반 반장 강재민
- 우리 측의 입장
 

㉠
- 양보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
  - 주중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그 외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함
- 우리 측의 요구
  - 주말에는 반드시 우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함
  - 부족한 연습 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
- 우리 측이 얻게 되는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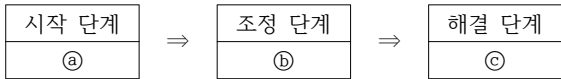
㉡

<조건>

- ㉠과 ㉡에 각각 두 가지의 내용을 서술할 것.
-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서술할 것.
- 윗글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서술할 것.

**수택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재민은 협상이 필요한 까닭과 무엇에 대해 협상할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있군.
- ② ㉠에서 정연은 동아리 연습 시간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군.
- ③ ㉡에서 정연과 재민은 자신들이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군.
- ④ ㉡에서 재민은 합창 대회를 준비할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에 사 일 간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군.
- ⑤ ㉢에서 정연은 재민의 대안을 받아들여면서도 또 다른 추가 조건을 제시하여 재민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군.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연 : (㉠홍분한 목소리로) 교내에서 열리는 합창 대회와 학교를 대표하여 나가는 외부 대회가 같니? 우리 동아리의 대회 출전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이야. 평소에도 우리 동아리가 매일 음악실을 청소하고 관리했는데, 청소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니?

재민 :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음악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서 음악실 사용 시간을 정해 보자. 지금 우리 반은 갑자기 합창 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거라 다른 참가 팀에 비해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해. 최소한 일주일에 사 일 이상은 모여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야. 게다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거라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꼭 필요해.

정연 :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너희도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 악기 연습까지 하려면 더욱더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우리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데다,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드럼과 같은 크고 무거운 악기와 전자 장비를 모두 옮겨야 해서 힘든 게 사실이야.

재민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을 듣고 보니, 너희 동아리는 음악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반이 주중에 하루, 주말 이를 이렇게 음악실을 일주일에 삼 일만 사용할게. 대신 너희 동아리는 사 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거지?

정연 : 우리 동아리 상황을 고려해 줘서 고맙긴 한데, 주말에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밴드 지도 강사님이 오셔서 연주 지도를 해 주시기로 했어. 아무래도 주말에는 우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주말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래?

재민 : 그때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주말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신 주중에 사 일을 우리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도 조금만 양보해 줘.

정연 :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가 언제인데?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연습을 하거든. 우리 동아리는 각기 다른 반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특정 시간이 아니면 전체 인원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

-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영복여자고등학교 (경기)**

6. 위와 같은 담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 '시작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장황하고 포괄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조정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 ④ '조정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상호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 ⑤ '해결 단계'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면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영복여자고등학교 (경기)**

7. ㉠, ㉡과 같은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발화자가 화가 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 ③ ㉠에 해당하는 것은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 등이 있다.
- ④ ㉡에 해당하는 것은 말투, 표정, 몸짓, 손짓 등이 있다.
- ⑤ ㉠, ㉡ 모두 발화자의 단순한 표면적 메시지에 의미를 더해 발화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협상 배경**

'재민'네 반은 학급 회의를 통해 보름 뒤에 열리는 교내 합창 대회에 급작스레 참가하기로 했다.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며 합창곡을 부르기로 해서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에서 연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 음악실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밴드 동아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음악실 사용 시간을 두고 '재민'네 반과 밴드 동아리 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반장인 '재민'이 밴드 동아리 회장인 '정연'을 만나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재민 :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3반 반장 간 재민이라고 해.

정연 : 안녕? 나는 밴드 동아리 회장 박정연이라고 해. 나도 반가워.

재민 : 요즘 우리가 음악실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잖아. 음악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 보자.

정연 : 그래, 그게 좋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아리는 지금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 준비로 한창 연습 중이야. 게다가 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방과 후에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따라서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

재민 :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당장 보름 뒤에 열릴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 우리도 너희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지만, 주중과 주말 시간 모두를 양보할 수는 없어.

정연 : (흥분한 목소리로) 교내에서 열리는 합창 대회와 학교를 대표하여 나가는 외부 대회가 같니? 우리 동아리의 대회 출전은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이야. 평소에도 우리 동아리가 매일 음악실을 청소하고 관리했는데, 청소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니?

재민 :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음악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서 음악실 사용 시간을 정해 보자. 지금 우리 반은 갑자기 합창 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거라 다른 참가 팀에 비해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해. 최소한 일주일에 사 일 이상은 모여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야. 게다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거라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꼭 필요해.

정연 :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너희도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 악기 연습까지 하려면 더욱더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우리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데다,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드럼과 같은 크고 무거운 악기와 전자 장비를 모두 옮겨야 해서 힘들게 사실이야.

재민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을 듣고 보니, 너희 동아리는 음악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반이 주중에 하루, 주말 이를 이렇게 음악실을 일주일에 삼 일만 사용할게. 대신 너희 동아리는 사 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거지?

정연 : 우리 동아리 상황을 고려해 줘서 고맙긴 한데, 주말에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밴드 지도 강사님이 오셔서 연주 지도를 해 주시기로 했어. 아무래도 주말에는 우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주말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래?

재민 : 그때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주말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신 주중에 사 일을 우리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도 조금만 양보해 줘.

정연 :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가

언제인데?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연습을 하거든. 우리 동아리는 각기 다른 반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특정 시간이 아니면 전체 인원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

재민 :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럼 네 말은 주중에 매일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니?

정연 : 아, 미안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 주면 우리가 연습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이었어.

재민 : 그렇다면 우리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음악실을 사용할게. 시간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가 좋겠어. 합창 대회가 나가려면 적어도 매번 한 시간씩은 꼬박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너희 동아리 연습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삼십 명이 넘는 반 친구들의 일정을 맞추려면 그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

정연 :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지. 네 요구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너희가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하도록 해.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음악실을 쓸게.

재민 : 음..... 그렇게 하자.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교실에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줄 수 있겠니? 주말에 아예 합창 연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연 : 그래, 마침 사용하지 않는 전자 피아노가 있어. 일반 피아노가 아니라 불편하겠지만, 전자 피아노로도 연습할 수 있다면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우리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음악실 청소를 맡아서 해 주었으면 해. 이제 너희도 음악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 동아리에서 음악실 청소까지 하면 연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 같아.

재민 : (미소를 지으며) 응,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어. 그럼, 우리 합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우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너희 동아리가 사용하기로 했어. 그리고 주말에는 너희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는 거야.

정연 : 그래, 맞아. 그리고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너희 반에서 음악실 청소를 맡아 관리하기로 했어. 혹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하자.

재민 : 그럼, 이제 합의한 거다. 우리 서로 잘해 보자.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8.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상은 양보와 설득을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 ② 협상에 있어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려면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③ 협상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 ④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 ⑤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논리적으로만 설득해야 서로 만족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9. 위의 협상에서 '재민'과 '정연'이 얻게 된 이익이 무엇인지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민' - 주중과 주말에 오후 다섯시부터 여섯 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함.
- ② '재민' - 주중에는 음악실에서 합창 연습을 할 수 있게 됨.
- ③ '정연' -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 부담이 줄어들음.
- ④ '정연' - 주말에 하루 종일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함.
- ⑤ '재민' - 주말에 교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정연'의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 합창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됨.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10. 위와 같은 협상 진행 시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할 것.
- ②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상대측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
- ③ 상대측의 처지와 요구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진행할 것.
- ④ '시작 단계-조정 단계-해결 단계'의 협상 절차에 따라 협상할 것.
- 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것.

### 4-(2) 우리말 바로 쓰기

#### 1.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뜻함.
필요성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으로서, 올바른 표기 생활을 위해 맞춤법이 필요함.

#### 2.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 1. '소리대로 적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을 의미함.</li> <li>한글은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함.</li> </ul> [예] 돌[돌], 눈물[눈물], 꿈[꿈]
원칙 2. '어법에 맞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의 형태소를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동일하게 표기함.</li> <li>단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으므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음. →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으면 그 뜻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음.</li> </ul> [예] 읽어[일거], 읽는[잉는], 읽자[익짜] → '읽-'

#### 3.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과 필요성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띄어쓰기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 단어(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감탄사, 조사)는 띄어 써야 함.</li> <li>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 제41항) → 다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그 앞의 말에 붙여 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띄어쓰기를 하면 안 한 경우보다 독해가 훨씬 수월함.</li> <li>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임.</li> </ul>

**발곡고등학교 (경기)**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문장은?

- ① 몹시 더웠는데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좋다.
- ② 갈국수를 먹어야 하니 깎뚜기를 듬뿍 담아라.
- ③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 ④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⑤ 올 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이전 년도보다 높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2. ㉠~㉥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으로 바른 것은?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수없이많은 것들이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되지요. ㉡그저시간이 지난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개의 이파리들을되돌려주고도아무소리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 ㉣난뭔가진실한걸안것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그게유일한자랑이될 겁니다.

- ① ㉠ :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 ② ㉡ :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 ③ ㉢ : 수천개의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 ④ ㉣ :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 ⑤ ㉤ :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갖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작한지 이틀째다. 줄넘기를 시작하면 오 분만에 숨이 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큰 욕심은 없다. 소녀시대 윤아만큼 날씬해지고 싶을 뿐이다.

- ① '시작한지'에서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오 분만'에서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③ '안 된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④ '한달'에서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⑤ '윤아만큼'에서 '만큼'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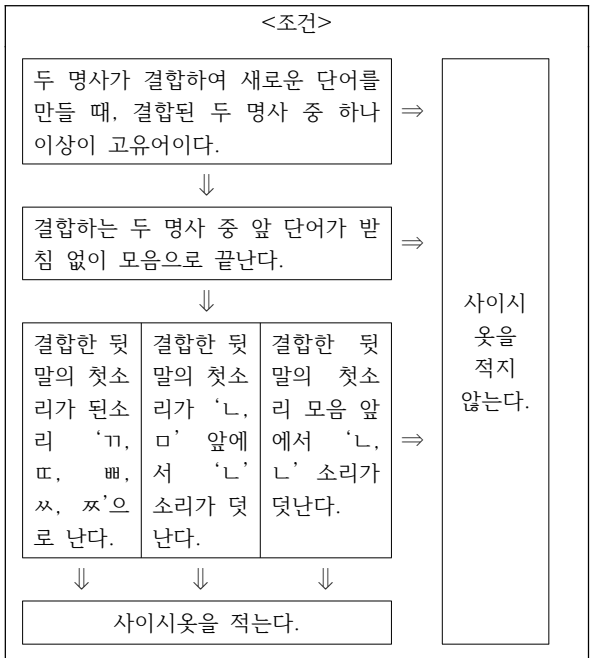
4.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사람은?

강철 : 점심시간에 했던 풋살 경기는 어떻게 됐어?  
 어준 : 12반이 이겼어. 전반전에는 삼 대 삼이었는데, 후반전에 12반이 한 골을 더 넣었지.  
 아영 : 그런데 심판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순이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나?  
 용민 : 네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

- ① 강철
- ② 어준
- ③ 아영
- ④ 순이
- ⑤ 용민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조건>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표기의 근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뒷말'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스이옷을 적는다.
- ②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스이옷을 적는다.
- ③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스이옷을 적지 않는다.
- ④ '국숫집'은 고유어 '국수'와 '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이스이옷을 적을 수 있다.
- ⑤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고유어가 아니지만 예외로 사이스이옷 적는 것을 인정한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아!

또 뭔데?

또 뭔데?라니 심심해서 그렇지. 아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졸려서 바깥에 **햇볕 좀 쬐려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누가 갑자기 말을 거는 거야.

어떤 여자가 말 걸었다는 **말도 안 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남자였음. 고등학생이었음. 갑자기 나보다 늙어 보이는 고등학생이 말 거는 거임. 고등학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몰랐음. 근데 막 나한테 여기 대학교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면 돼**.” 라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봐요.**” 하고 가더라?

아, 나 바빠. **일 해야 되**. 빠이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돼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되’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햇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짹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회전틀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씹쓸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ㅂ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꼇만], [꼇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꼇’, ‘꼇’, ‘꼇’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을’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②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③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④ 확율(確率), 실패율(失敗率)  
 ⑤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율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먹어(○)머거(X), 놓아(○)노코(X)

[붙임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



4-(2) 우리말 다시 쓰기

한글 맞춤법 규정	올바른 표기
① ㉠	(그럴 꺾×, 그릴 꺾○)
② ㉡	(따뜻히×, 따뜻이○)
③ ㉢	(오투기×, 오투이○)
④ ㉣	(찾아봘니×, 찾아봘니○)
⑤ ㉤	(공염불×, 공염불○)

**정말고등학교 (경기)**

17.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만을 (나)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두 가지 연습하기

㉠ '솔'에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를 '소나무'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쓰러지다'를 '쓸어-'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집'에 접미사 '-옹'이 결합된 파생어를 '지붕'으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구름'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할 때 '구르미'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밭-'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을 항상 '밭'으로 고정시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女性'을 원래 음을 밝힌 '녀성'으로 적지 않고 '여성'으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 ⑤ ㉠, ㉡, ㉣, ㉥

**정말고등학교 (경기)**

18.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예 국수, 납작

제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예 똑딱똑딱, 녹녹하다

- ① ㉠을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가 소리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영동하다'가 아니라 '영똥하다'로 적는 것은 ㉠의 '몽땅'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난리법쩍'이 아니라 '난리법척'으로 적는 것은 ㉡의 '납작'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민밋하다'가 아니라 '밋밋하다'로 적는 것은 ㉢의 '녹녹하다'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씩뚝'이 아니라 '씩뚝'으로 적는 것은 ㉣의 규정을 따를 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정말고등학교 (경기)**

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빛물, 등꽃길, 뒷일, 헛수, 깻잎, 꼭짓점, 아랫마을

<보기 2>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p> <p>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다.</p>	→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예		
<p>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p>	→	
↓ 예		
<p>1.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ㄱ, ㄷ, ㅃ, ㅆ, ㅈ'으로 난다.</p>	→	
또는		
<p>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p>	→	
또는		
<p>3.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5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p>	→	
↓ 예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시옷을 적는다.</p> <p>1. 등꽃길, 꼭짓점</p> <p>2.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5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p> <p>3.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5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p>		



10.⑤ 11.④ 12.③ 13.① 14.⑤ 15.'장마'는 동만의 가족에게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의미하며, '장마였다'라고 끝낸 것은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한다. 16.'장마'는 동만의 가족에게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의미하며, '장마였다'라고 끝낸 것은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한다. 17.가족사적 측면에서는 한 가족의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고, 민족사적 측면에서는 육이오 전쟁을 의미한다. 18.㉓ 19.④ 20.④ 21.장명등은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을 의미하며 ㉔은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22.⑤ 23.① 24.③ 25.① 26.② 27.① 28.⑤ 29.① 30.③ 31.③ 32.③ 33.④ 34.② 35.④ 36.⑤ 37.④ 38.② 39.㉗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의미하고, ㉘가 꺼져 있었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40.① 41.⑤ 41.상징적 의미: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환생을 의미한다. 역할1: 이념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구렁이로 형상화한 것이다. 역할2: 사건 전개 전환점으로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될 계기를 제공한다. 43.③ 44.④ 45.② 46.⑤ 47.① 48.⑤ 49.상징적 의미-할머니의 모성애, 혈육의 정을 상징한다. 역할-구렁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50.⑤ 51.④ 52.④ 53.③ 54.⑤ 55.⑤ 56.② 57.무속 신앙을 믿는 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해 즐기고,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위로하고 달래서 배운다. 이 사건을 통해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된다.

**2-(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1.② 2.④ 3.③ 4.② 5.③ 6.④ 7.⑤ 8.④ 9.④ 10.③ 11.③ 12.② 13.③ 14.④ 15.⑤ 16.④ 17.① 18.④ 19.④ 20.② 21.② 22.생각이 바뀌기 전에 집이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다. 생각이 바뀐 후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다. 23.⑤ 24.⑤ 25.㉗-C.U. ㉘-인서트(Ins.), ㉙-내레이션 26.② 27.③ 28.④ 29.⑤ 30.두 갈래 모두 대사와 해설,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두 갈래 모두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현재형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두 갈래 모두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31.④ 32.① 33.④ 34.② 35.③ 36.신을 구성단위로 하여 시간과 공간을 표시한다.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 등장인

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제시한다. 시유(C.U.)와 같이 활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를 사용한다. 37.① 38.② 39.④ 40.④ 41.⑤ 42.(1)몽타주 (2)긴밀성이 높아진다. 사건의 진행을 축약해서 보여준다. 43.③ 44.②

**2-(4) 한 그루 나무처럼**

1.① 2.③ 3.⑤ 4.④ 5.② 6.④ 7.우주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참나무를 우주나무로 삼은 이유는 '나'가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참나무를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8.⑤ 9.③ 10.④ 11.② 12.⑤ 13.① 14.⑤ 15.④ 16.② 17.⑤ 18.⑤ 19.⑤ 20.① 21.③ 22.① 23.⑤ 24.③ 25.④ 26.⑤ 27.⑤ 28.⑤ 29.④ 30.⑤ 31.③ 32. (1)장도리로 참나무에 박혀 있던 녹슨 대못을 빼내어 주었다. (2)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 33.④ 34.④ 35.①

**3-(1)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1.② 2.① 3.⑤ 4.② 5.① 6.④ 7.⑤ 8.③ 9.⑤ 10.② 11.③ 12.⑤ 13.② 14.⑤ 15.① 16.② 17.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지므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8.② 19.① 20.③ 21.① 22.⑤ 23.⑤ 24.② 25.① 26.③ 27.② 28.⑤ 29.(가)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0.① 31.④ 32.③ 33.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적절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34.① 35.④ 36.③ 37.⑤ 38.④

**3-(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1.③ 2.④ 3.④ 4.㉗-한 달도 남지 않은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 ㉘-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주말에 강사의 연주 지도를 받으며 집중 연습을 할 수 있게 됨 5.④ 6.③ 7.④ 8.⑤ 9.① 10.③ 11.㉗-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이해하기 ㉘-대안 제시 및 상호 검토하기 12.④ 13.⑤ 14.② 15.⑤ 16.③ 17.④ 18.② 19.① 20.④ 21.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22.③ 23.② 24.① 25.

④ 26.③ 27.재민은 주말 네 시 이후에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주중 사 일 동안 원하는 시간대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28.① 29.④ 30.④ 31.② 32.④

**4-(1)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고], 선릉역[선릉역], 갔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퀸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 ② 14.③ 15.③ 16.④ 17.㉡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②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ㄹ'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 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4-(2) 우리말 바로 쓰기**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 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뚝싹뚝→ 싹뚝싹뚝, 회전룰→ 회전울, 촛점→ 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룰→ 백분울, 댓가→ 대가, 빼어야→ 빼야(뺏어야) 13.② 14. 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ㄹㄹ'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깎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울→선울, 몹시→몹시, 얇은 체→얇은 체,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울→황금룰: '렬/룰'은 모음이나 'ㄹ' 받침 뒤에 오면 '열/울'로, 'ㄹ'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룰'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

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얻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꿀씨를√했다 38.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러→몽뚱그러:㉠, 씹술한→씹쓸한:㉡ 47.④ 48. 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틀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ㄷ. 뵈요→뵈요 ㄹ: 순대국→순댓국 65.②

**4-(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1.② 2.③ 3.② 4.② 5.④ 6.⑤ 7.② 8.③ 9.⑤ 10.① 11.⑤ 12.③

**5-(1)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1.⑤ 2.⑤ 3.④ 4.① 5.③ 6.③ 7.⑤ 8.책임말을 사용한다. 9.④ 10.④

**5-(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1.⑤ 2.② 3.① 4.(1) 안녕하세요?→좀 어떠십니까?/ 열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2) 할아버지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안부 인사는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5.③ 6.④ 7.④

## 5-(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 1. 대화의 개념과 기본 원리

<b>개념</b>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
<b>기본 원리</b>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임.

### 2.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말해야 하는 이유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예) 문병을 간 상황에서는 아픈 사람에게 “안녕하세요?”와 같이 인사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말하기가 될 수 있음.

### 3. 대화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b>부탁하는 상황의 말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말기는 말하기임.</li> <li>•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좋음.</li> </ul>
<b>건의하는 상황의 말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내놓는 말하기임.</li> <li>•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음.</li> </ul>
<b>거절하는 상황의 말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말하기임.</li> <li>•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음.</li> </ul>
<b>사과하는 상황의 말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임.</li> <li>•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음.</li> </ul>

↓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해야 함.

### 4.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해야 하는 이유

<b>언어 예절</b>	→ 지키지 않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li> <li>•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li> </ul>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임.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1. 다음의 대화에서 학생A의 말하기 태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A : 야, 거기 문 좀 닫아.  
 학생B : 바쁘니까 네가 닫아. 웃겨!

- ①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부탁을 하고 있다.
- ③ 상대방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원하는 바를 말하기 전에 자기의 처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 ⑤ 부탁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말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보기>에서 맞게 골라 묶은 것은?

상황 : 이미 봉사 활동 약속이 잡혀 있어 주말에 낚시를 가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보기>

ㄱ.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할아버지의 제안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다.

ㄴ.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고 거절의사를 밝혀 할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린다.

ㄷ. 할아버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한다.

ㄹ. 거절 의사를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할아버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ㅁ. 할아버지의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제시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3. (가)와 (나)의 대화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공통적인 이유는?

(가) 할머니 : (서준의 방에 갑자기 들어오며) 서준아 무슨 거 허염나?  
 서준 : (놀라며) 할머니, 그렇게 갑툭튀하면 놀라잖아요.  
 할머니 : 갑툭튀? 그게 뭐우짜?  
 서준 :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말이에요. (시큰둥하게)  
 할머니께서 제주도 방언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할머니 : …… (서운한 표정으로 방을 나간다.)

(나) 노인1 : 자네 춘부장께서는 편안하신가?  
 노인2 : 가친께서는 건강하시네그려. 자네야말로 몸 버리지 않게 조심하게  
 학생 : 춘부장과 가친은 사람 이름인가?

- ①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
- ②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
- ③ 특정 직업에 따른 언어 차이
- ④ 남녀의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
- ⑤ 개인적 성향에 따른 언어 차이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4. 다음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간 상황에서의 대화이다. 언어예절에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화 상황과 상대를 언급하여 서술하시오. (서술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한 문장을 서술하지 않으면 감점함.)

손자 :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 응……. 그, 그래.
-------------------	--------------------

- (1) 예절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
- (2) 틀린 이유를 서술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 가운데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순서 교대의 원리란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손성의 원리를 위해 지켜야할 규칙

- ㉠ 요청의 격률 -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한다.
- ㉡ 관용의 격률 -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한다.
- ㉢ 칭찬의 격률 -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 ㉣ 겸양의 격률 -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한다.
- ㉤ 동의의 격률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 간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두 의견 사이의 일치점은 최대화한다.

**영복여자고등학교 (경기)**

5. (나)의 ㉠ ~ ㉤에 제시된 공손성의 원리를 지켰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은?

- ① ㉠ : 다음 주에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내가 발표를 맡아주면 어떨까?
- ② ㉡ : 예, 선생님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 ③ ㉢ : 내가 보기엔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지 혼자 준비했을 때보다 발표가 매끄럽긴 하더라. 근데 실수가 너무 잦더구나. 본선에서는 더 노력하렴.
- ④ ㉣ :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본선에서는 더 노력할게요.
- ⑤ ㉤ : 그래, 연극도 좋지만 네가 말한 영화도 참 좋아. 웅장한 스케일과 음악이 감동적이야.

**영복여자고등학교 (경기)**

6. (가)와 (나)를 참고하여 ㉠ ~ ㉤에 대한 반응이 가장 적절한 것은?

엄마 : (서준의 방에 들어오며) 서준아.  
 서준 : (휴대 전화를 들여다보며) 저녁 먹으라고요?  
 엄마 : 아니, ㉠엄마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러는데, 동생 데리고 치과 좀 다녀오면 안 될까? 너도 정기 검진 받아야 하고…….  
 서준 : ㉡(엄마의 말을 끊으며) 저 지금 바빠요.  
 엄마 : 그래? ㉢오늘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오후 시간으로 예약했거든.  
 서준 : 그냥 다음 주에 가면 안 돼요?  
 엄마 :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  
 서준 : (들릴 듯 말 듯하게) 동생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요.  
 엄마 : ㉤응?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서준 : 아니에요. 다녀올게요.

- ① ㉠ :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② ㉡ :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어 자신의 거부의를 명확하게 밝혀 상대의 부담을 낮추었다.
- ③ ㉢ : 상대방에게 부탁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비방을 낮추었다.
- ④ ㉣ :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었다.
- ⑤ ㉤ :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부담을 낮추었다.